닥치는 대로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 21면에서 계속

부(父)가 있고, 자기한테 스승이 있고, 자기한테 부처가 있고, 자기한테 법신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콩싹이 바깥에서 콩씨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백 년을 가도 안 되고 천 년을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왜 걱정하게 만드느냐는 얘깁니다.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우리는 또 교육을 받음으로써 좋고 그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라도.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다가 습기와 모든 에너지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다 평등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놔라. 둘이 아니니까 주인공에 전해진다면 바로 자기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생각을 내면 애비가 돼 버리고, 둘이 아닌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비가 생각했던 마음 그대로 자식이 전달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 살아나오면서 경험을 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너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구나." 할 때 에너지로 인해서 그냥 넣어 주란 얘깁니다. 주인공에 맡겨 놔, 잘 끌고 다니라고. 그런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밀어서 그렇게 가게끔 한다면 여러분한테 걱정이 뭐 있겠습니까? 잘되고자 생각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된다더라.' 하는 것도 거기다 놓으세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마찬가지야. 죽고 사는 거는, 한울에 매여 있어.

각본대로 이렇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각본대로 여러분이 한 것만치 받아서 지금 나온 거거든. 그러니 그 한 것만치 악과 선 속에서 그냥 허덕이지 말고 그 속에서 활짝 벗어나란 얘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믿고 놓고, 모르고 아는 거를 다 감사하게 놓고 '거기서밖엔 할 수 없지.' 하고 놓고, 그러고 난 뒤 생각을 잘하시란 얘깁니다. '언짢다' 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절대로 언짢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짢을 게 없습니다.

어저께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 가지 생산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돌아갑니다. 이걸 이해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과거지마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볼 때에, 체가 있는 몸뚱이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입니다! 또 미래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본다 하는 것은 초보적인 문제인데도 그거를 몰라서 과거를 묻고 현재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또 미래를 묻습니다.

예전에 여기에다 법당을 지을 때에 그런 말을 했죠. 어느 스님께서 "여기에다가 지으면은 궁색함을 면할 수 없어서 여기가 좋질 않은데…."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좋고 좋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전 잘되는 거 바라지도 않고 못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좋을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안 좋겠죠, 뭐." 허허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충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고속도로가 나고, 수원이 앞으로는 큰 도시가 되고, 또 여기도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좋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들으면 아는 소리도 잘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말 못 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나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만 배우면 건방져지고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하고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자기가 작용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나빠진 부분을 좋게 할 수 있고 좋아진 걸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지, 보고 듣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미래를 본 거 아닙니까? 미래가 아닐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5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이 안양을 보십시오. 그때 50년 전에 있었다 생각하고 한번 미래로 돌아서 지금을 보십시오.

미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앞에 그러한 말을 하면, 그럼 왜 부처님 법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하겠죠.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아서 자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얕게도 해 놓고 높게도 해 놓을 수 있으니까 높다는 말을 할 수 없고 얕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높게도 해 놓을 수 있고 얕게도 해 놓을 수 있는데 '저기는 몇 해 전에 이렇게 왔고 저기는 몇 해 있으면 높고'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도 의심 마시고 믿고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 자리에다 맡기세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이 마음을 타파할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가서야, 자연적으로 스스로서 마음의 능력이, 샘물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면은,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공부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어떻게 회사에 가셨겠습니까? 노력이 있지 않고는 내 내공의 타파를 못 하며, 삼심 내공의 타파를 못 합니다. 이 세상 사공법을 모릅니다. 오심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즉, 원심력 말입니다. 원통력을 스스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뛰어넘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의례 의식이나 모든 절차, 계율 같은 거는 이미 아시리라고 믿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런 거는 으레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과 인간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었죠. "모르는 어린애들은 업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어린애가 세 살 네 살인데 어떻게 업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고 짓는 거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 거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끼리끼리 모이니까. 지금 현 세상을 잘 보시면 아시듯이, 무쇠전에 무쇠가 모이고, 아니 쌀전에 가보면 죄 알겠군요.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놨죠.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런 사람끼리 모여.

그런데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건 무슨 영향을 받느냐. 마음을 잘못 쓰면 행도 잘못 나가고 말도 잘못 나가. 신경질을 부리고 말이야. 안 되고 걸리니까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조건이 걸리지 않는데 왜 신경질이 납니까? 만사가 신경질을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대로 그냥 순응해서 무난히 흐르고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닥쳐오는 대로 놓고, 닥치는 대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 놓고 죽은들 가난한 집안을 두고 죽은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엽전 한 푼 가지고 있어도, 내 몸뚱이를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내 몸뚱이 끌고 갈 수도 없고 엽전 한 푼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자식들이 근중하다 하지만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알아야 자식도 가족도 조상도 다 서로 가고 오옴이 없이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서 공생할 수가 있고 공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 자리에다 맡기세요.
> 우주의 근본도, 태양의 근본도, 세상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라.
> 이 마음을 타파할 때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는 무심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안 된다고 우기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는 그 뜻은, 모든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한자리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자리에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을 잘 쓴다면은 그게 뭔 걱정이 있습니까? 네? 무쇠도 녹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 봄이 와서 스스로 물은 녹아서 청청하고, 아니, 날은 밝아서 휘영청하니 꽃은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 열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지은 대로 소임을 맡아서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이 땅도, 흙도 살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 모든 걸 깔봐서도 안 되고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되고 건방져도 안 되고, 마음은 꿋꿋하게 주인공을 세우면서도 거죽으로나 행으로나 말로나 어디로든 겸손하고 건방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래야만이 모든 만물만생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까닭에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걸 통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떼 놓으면 무얼 통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급해서 한마음을 낼 때는 만 명도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만 명, 한 명의 한 생각에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천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급한 일에도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지 개별적인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왔으면 배고플 땐 그냥 집어먹어야지, 절차를 따져서 누구 누구 누구 이럭하다 보면 다 없어지니, 닥치는 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경이나 뭐를 보지 말고 의례 의식을 지키지 말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시주할 돈이 없는데 빚을 내다가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 모든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분수를 지켜서 해라 이겁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쓰지 않고 그저 '이거 이럭하면 된다더라' 하고 남의 말 생각하듯 남의 말을 듣듯 하지 말고, 들어서 약이 될 것도 놓고 들어서 약이 안 될 것도 다 놔.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체질이 돼서 나쁜 거는 흘러나가고 좋은 거는 거기서 생산이 돼서 나와. 금을 캐면 금만 일렁일렁해서 나오고 흙은 다 밑으로 빠져서 물로 들어가 다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 밥 먹으면 대변으로 소화가 되듯이, 그리고 영양분은 다 몸으로 오장육부에서 인체로 돌아가듯이.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되, 내공을 타파해야만 이 나중에 경을 봐도 그게 거름이 된다는 얘깁니다, 전부.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지. 그 자리에는 한 자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생산처가 생각나는 대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제발 진실로 믿고, 가정의 괴로움을 덜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덜고, 자식들의 업보나 괴로움을 덜어서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2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